

# 나주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여전히 인색'

### 13개 기관 지난해 평균 채용비율 17.9% 그쳐...한전 15.8% 부산 31.6% 4년째 20%대 후반 유지...충북 8%→25.5%

지난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은 전체 신규 채용인원의 17.9%를 광주·전남 인재로 채용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부산과 대구·경북, 충북 등 4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公示된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447.5명으로, 전년(540.8명)보다 93.3명(-17.2%) 감소했다.

전체 신규 채용인원은 2496명으로, 역시 지난 2019년(3174.8명)보다 678.8명(-21.4%) 줄었다.

전체 채용인원에 대비한 지역인재 비율은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한 2015년부터 20%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13개 기관의 신규 채용 대비 지역인재 비율은 ▲2015년 13.9%(1996명 중 277.8명) ▲2016년 10.1%(2143.8명 중 216명) ▲2017년 15.4%(2668명 중 411.8명) ▲2018년 15.1%(3144.8명 중 474명) 등 오르락내리락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끝으로 혁신도시 이전 시점을 마친 지난 2019년에는 전체 채용 3174.8명 가운데 540.8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면서

17.0%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해인인 2020년 채용비율은 17.9%로,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부산(27.9%), 대구·경북(24.6%), 충북(25.5%) 혁신도시와 비교해보니, 나주 혁신도시만 20%를 넘지 못했다.

한국남부발전(주)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기관이 있는 부산 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492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27.9%에 달하는 137.5명을 지역에서 뽑았다.

부산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8.4%(2015년)→22.6%(2016년)→30.1%(2017년)→28.1%(2018년)→31.6%(2019년) 등 최근 4년 동안 20%대 후반선을 지키고 있다.

대구·경북 16개 기관 지역인재 비율도 매년 나주 혁신도시를 웃돌고 있다. 15.3%(2015년)→18.8%(2016년)→20.3%(2017년)→22.5%(2018년)→22.2%(2019년)→24.6%(2020년)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대구·경북 혁신도시 채용 1401명 가운데 344명은 지역인재로 채용됐다.

전남을 제외하고 방사광가속기 유지를 거머쥔 충북 혁신도시 역시 지난해 4명 중 1명 꼴로 지역인재를 뽑았다.



지난해 전체 183.3명 가운데 25.5%에 달하는 지역인재 46.8명이 채용문을 넘었다.

충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4.8%(2015년)→6.1%(2016년)→8.0%(2017년)→13.4%(2018년)→19.6%(2019년)→25.5%(2020년) 등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기관 가운데 평균 채용비율(17.9%)을 밑돈 기관은 한국전력공사(15.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3.0%), 한국농어촌공사(1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0%) 등 4곳이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9명 가운데 7명(77.8%)을 지역인재로 할당하며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40.9%), 한국콘텐츠진흥원(38.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8%), 한국인터넷진흥원(26.9%), 한국문화예술회관진흥재단(26.3%), 한국전력거래소(23.0%), 한전 KDN·한전KPS(각 22.0%) 등이 뒤를 이었다.

한전은 지역인재 245명이 최종 합격 명단 1547명 안에 들었다. 전년 비율(13.8%·1772명 중 244명) 보다는 소폭 올랐다.

한편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신규 채용은 무려 678.8명(-21.4%) 감소했다. 신규 채용인원이 3174.8명에서 2496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5분의 1을 덜 뽑은 셈이다.

신규 채용 감소율이 가장 컸던 곳은 한전KPS(주)로, 전년 713명에서 386명으로 반토막(-327명→45.9%) 났다. 이외 감소율이 큰 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 44.4%(55명→30.5명), 한국농어촌공사 36.2%(326명→208명), 한국전력공사 12.7%(1772명→1547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4%(54명→50명) 순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제3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광주신용보증재단이 1일부터 '코로나19 위 기극복 제3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을 온라인 접수한다.

광주신보는 광주시와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코로나 3차 특례보증을 시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와 보증료율은 각각 2.7%와 0.7%이다.

광주신보는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무(無) 혜택을 내걸고 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대출일로부터 1년 간 이자와 보증료가 면제된다.

지난해 3월에는 '3무 특례보증' 5100억원, 같은 해 12월 5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3차 융자지원은 시행 초기 신청자 급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광주신보 홈페이지 온라인 업무를 확대했다.

보증금급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대출 희망 금액을 미리 적은 뒤 창구 혼잡시간을 피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이다.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영위자와 광주시 1-2차 융자지원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광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은 2년 일시상환(이후 추가 3년까지 1년 단위 연장), 하나는 5년 일시상환이 조건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금호타이어 노조 총파업 예고

### 노동쟁의행위 투표 조합원 74.1% 찬성...“이달 초 총력투쟁”

사측과 입단협이 결렬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노동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노동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2668명 중 2355명(89.47%)이 투표에 참여해 1977명(74.10%)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투

쟁 지점을 확정된 뒤 이달 초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7월 본교섭 상견례 이후 입단협을 이어왔으나 이날까지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010년 이후 5년간 워크아웃 동안 40% 상당의 임금이 삭감됐고,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2018년 특별합의를 통해 상여금 250%반납과 각종 복지축소,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는 점에서, 2년 연속 영입의 발생을 근거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2019년 2분기 18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10분기 만에 영업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분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대내외 경영여건을 고려,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 역시 전 구성원과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사랑의 열매' 성금 전달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맨 왼쪽) 임직원들은 지난 28일 성금 84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21 나눔캠페인'에 전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600만원 더 모인 액수로, 전달식에는 이성욱(오른쪽)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도 참석했다.

<광주은행 제공>

# 다시 도약의 해

기아 광주공장은 최근 기아 광주교육센터 스튜디오에서 랜선 신년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날 광주공장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광주공장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미래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다시 도약하자'는 의미의 비즈니스 목표 'Let's Bounce'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계획으로 '고객 중심 가치 실현'과 '공장 운영 효율 증대', '지속 성장 토대 구축' 등 전략방향을 추진한다.

'고객 중심 가치 실현'을 위해 스포티지 후속 신차의 양산일정 준수에 전 부문 역량을 집중, 시장수요에 대한 맞춤형 생산활동과 기호품질 강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공장 운영 효율 증대'를 위해 부문간 소통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지속 성장 토대 구축'을 위해 미래 지향적 조직역량을 확보,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립과 안전이 내재화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로또복권 (제94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3 18 30 31 38 41	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188,548,716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4,581,548	90
3 5개 숫자일치	1,381,184	2,905
4 4개 숫자일치	50,000	137,929
5 3개 숫자일치	5,000	2,252,913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엔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한진원 시인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저자 이진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